

장성 출신 고진재량 독립가 '숲의 명예전당' 헌정 영예

숲 가꾸기 60년 외길 인생 100만 그루 이상 심고 가꾸

산림 분야 최고의 명예를 부여하는 숲의 명예전당에 장성 출신 고진재량 모범독립가가 헌정됐다. 숲의 명예전당은 산림청에서 2001년부터 고인을 대상으로 국토 녹화와 임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 중에서 선정한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현신규 박사, 임종국 조립가, 민병갈 천리포수목원장, 최중현 SK그룹 회장 등 6명만이 국립수목원 전시에 헌정됐다.

선정 절차는 ▲전국 헌정 후보자 추천 ▲9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심사 ▲산림청장이 추대하는 11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고진재량 모범독립가는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공을 인정받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헌정자로 선정됐다. "미래 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남겨주려면 숲을 만들고 가꾸어야 한다"는 신조로 60년간 묵묵히 숲을 일궈온 국토 녹화의 숨은 공로자다. 지난 199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모범독립가로 선정됐다.



고진재량(왼쪽)씨와 아들 진준호씨.

고인이 화순, 담양 지역 무등산 일대 임야 667ha에 심은 편백과 삼나무는 현재 40년생 정도의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자라고 있다. 특히 끊임 없는 개척정신으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화순

군 일원에 72ha 규모의 무등산 편백자연휴양림을 자력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을 남겼다.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이 모지로 바뀌는 것을 보고 사회 각계 인사 및 전문가와 뜻을 모아 친환경적인장묘문화선도운동에 앞장섰으며, 숲해설가 교육을 통한 후배 양성에도 힘써 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안상현 전남도환경산림국장은 "고진재량 모범독립가의 지역 사랑과 숲 조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명품숲이 조성됐다"며 "후손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숲을 남겨주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했던 고인의 뜻을 잇도록 명품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여성가족재단, 장애인보건센터와 장애인 인권보장 협약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경례)은 12일 9층 대강의실에서 지역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센터(센터장 최인성)와 지역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양 기관은 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역장애인의 학대, 차별, 및 인권침해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 및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



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힘써 줄 예정이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센터와 함께 지역장애인의 학대, 차별 및 인권침해 등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신대 총학생회,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전달



동신대학교 총학생회(회장 현진환)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 부속실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 총학생회 간부들이 재학생을 대표해 이주희(약술 왼쪽에서 네번째) 총장과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 전진 교학부총장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현진환 총학생회장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주희 총장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진제초 김수현군, 산불 진화 공로 광주남부경찰서장 표창

진제초등학교 김수현(6년)군이 산불 진화 공로로 광주남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16일 진제초등학교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이날 진제초등학교를 방문해 김수현군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

김군은 지난달 24일 진제초등학교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나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줬다.

신고 받고 초기 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김수현군은 경찰관들을 안내해 초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수현군은 "당시에는 작은 도움이었지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 기쁘다. 앞으로도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목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복환모 교수 '조선총독부의 프로파간다' 출간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 공연학과 복환모(사진) 교수가 '조선총독부의 프로파간다' (바른북스)를 출간했다.

'조선총독부의 프로파간다'는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자행된 일본의 영화를 이용한 '한일융화' 정책을 파헤친 연구서다. 조선총독부 관보, 영화 검열자료, 당시의 일본 영화전문지 등을 발굴하여 일제가 한국 식민지통치를 위해 영화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수 픽 쌤과 함께(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야(재)	00 애니갤러리 30 나비의 모험 45 헬로키티 13 켄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홍길동전(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특집 바이시클 로드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재) 30 영상앨범 산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도깨비캡처-보물산의 전설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스튜디오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편먹고 공치리5-승부사들
11	30 KBS 뉴스라인	00 9층 시사극 45 세상의 모든 다큐		
12	10 시사기획 창(재)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4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뽀뽀뽀 뽀뽀 뽀뽀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숲이 그린 집	19:00 한국의 둘레길
07:00 시골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9:20 고향민국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9:50 귀하신 몸(재)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재)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재)	<찬란한 봄 크로아티아 -남생처음, 슬라보니아>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한술 돌리러 갈지도 3부 고립 낙원! 무인도 생존의 법칙 2>
08:50 올망 올망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다큐멘터리K
09:05 최고! 호기심딱지(재)	17:00 페퍼 피그	22:50 숲이 그린 집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티타와 쿠마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뽀 뽀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음 3월 28일 乙亥) ☎ 010-9790-8237

<p>36년생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48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져주는 과격의 처지가 될 것이다. 60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72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84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96년생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행운의 숫자 : 00, 96</p>	<p>42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54년생 참으로 아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탈해질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66년생 이용당할 수도 있다. 78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다. 90년생 가볍게 통과되었다. 02년생 방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1, 85</p>
<p>37년생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 49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61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73년생 자신감 있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하라. 97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35, 63</p>	<p>43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을 관철시켜 주도하게 되리라. 55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라. 67년생 혼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라. 79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91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라. 03년생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51</p>
<p>38년생 과감하게 펼쳐버리고 확실히 벗어날라 한다. 50년생 임시 위상이나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62년생 공상에 사로잡히면 망신살이 뻗는다. 74년생 잠자면 안을 것이니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우라. 86년생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98년생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94</p>	<p>44년생 초기의 형편이 끝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56년생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볼 일이다. 68년생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80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92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전하리라. 04년생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16, 81</p>
<p>39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51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63년생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75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87년생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 볼 일이다. 99년생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 행운의 숫자 : 25, 86</p>	<p>45년생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57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편면만을 인식하지 말라. 69년생 기준이 상승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어지는 성국이다. 81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라. 93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05년생 결정을 만나라. 행운의 숫자 : 12, 52</p>
<p>40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52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4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76년생 변함없이 한결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00년생 차질이 빚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09, 55</p>	<p>34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46년생 귀한 육이 진흙 속에 박혀 있으니 알아보는 이가 없도다. 58년생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든 지 반대이든지 간에 매한 가지이니라. 70년생 지금 관리해 두는 것이 이익이다. 82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94년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15, 99</p>
<p>41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53년생 위기를 잘 넘기라. 65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인다. 77년생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자. 89년생 일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01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18, 92</p>	<p>35년생 절실히 바라던 일이 훌쩍하게 이루어지겠다. 47년생 지나치다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59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71년생 행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라. 83년생 노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진전이 있으리라. 95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4, 61</p>